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미·중무역위원회(USCBC)의 2022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¹⁾

목차

1. 제로코로나 정책과 미·중관계
2. 중국의 산업정책 환경평가
3. 기업 실적 및 향후 계획

요약

- 금년 설문조사 결과, 재중 미국기업이 사업에서 직면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을 꼽았으며, 지난 4년동안 1위였던 '악화되는 미·중간 긴장관계'를 제친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87%는 경영환경에서 미·중 무역 긴장상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일부 기업은 전략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함
- 중국 산업정책이 공정경쟁을 제한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기업 비중은 2019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중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확대되었다고 보는 반면,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정책 지원은 그대로거나 감소했다고 체감
- 데이터·사이버보안·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재중 미국기업이 여러 불리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선불리 사업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USCBC는 중국 정부가 자국보호주의 기반 산업정책을 적극 개선하고 외자기업에게도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1) 본문은 금년 8월에 발표한 2022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에 소재한 117개 USCBC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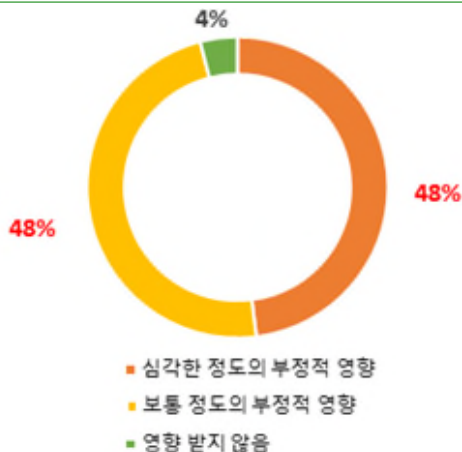
1. 제로코로나 정책과 미·중관계

- 미중무역위원회(美中貿易全國委員會, US-China Business Council)는 197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워싱턴DC, 베이징,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260개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 구성
 - USCBC는 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회원사는 대기업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소기업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조사 보고서 응답기업의 주요 업종은 제조업(비중 39%), 서비스업(39%), 기술집약업 (24%), 기타(11%), 에너지업(10%), 농업(4%)으로 구성됨

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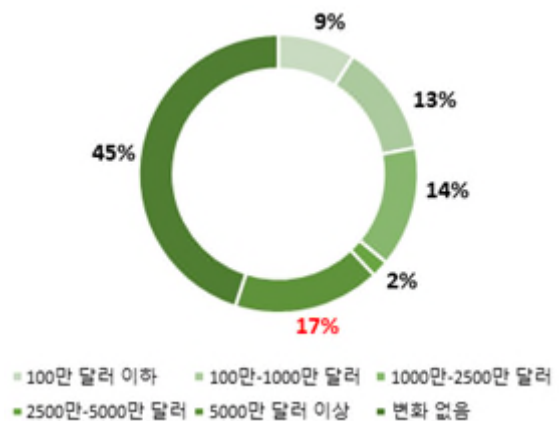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재중 미국기업이 사업에서 직면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을 꼽았으며, 지난 4년 동안 1위였던 '악화되는 미·중간 긴장관계'요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96%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의 기업은 타격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음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기업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계획에 초래하는 차질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음
 - 응답기업의 55%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며, 그중 17%는 5,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함
 - 응답기업의 44%는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 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함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이 기업에 미친 영향 정도



자료 : USCBC 보고서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취소 또는 연기된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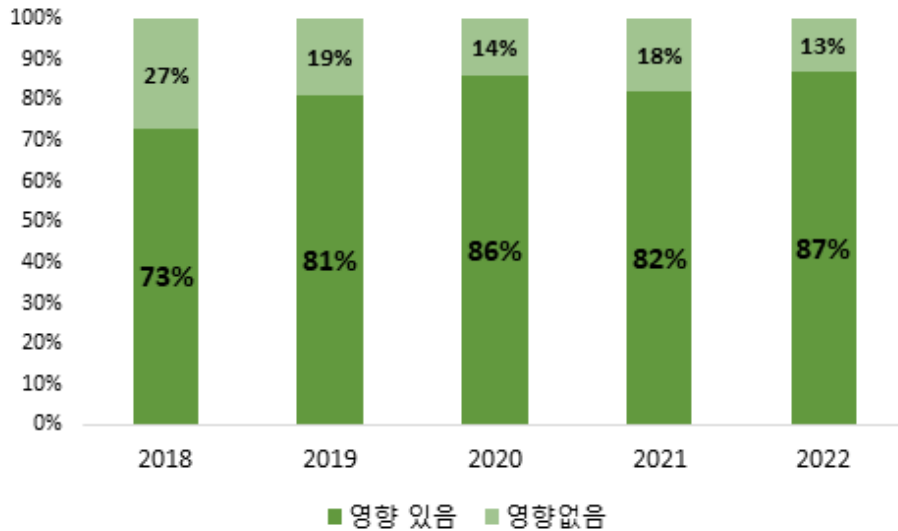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②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

- 응답기업의 87%는 미·중 무역 긴장상태로 인해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로 향후 몇 년간 양국 대립 국면이 쉽게 호전되어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함
- 2019년부터 미·중 무역 경색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기업의 비중이 8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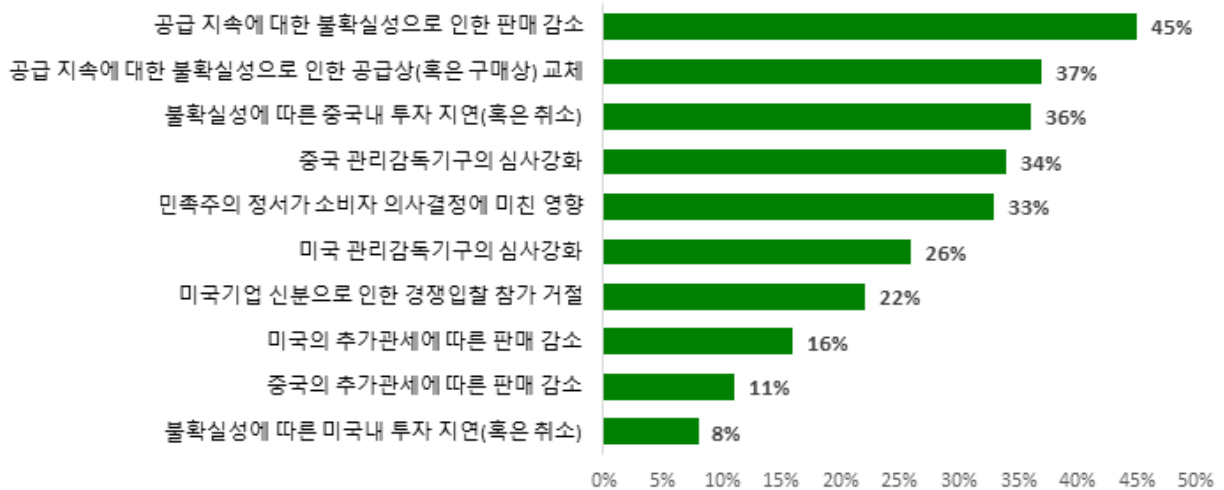
2022년 미·중 무역 긴장 상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여부



자료 : USCBC 보고서

- 양국 무역 긴장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은 지속적인 공급능력(납품)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며, 이에 대응하여 공급상을 교체하는 응답기업의 비중도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33%는 민족주의 정서가 소비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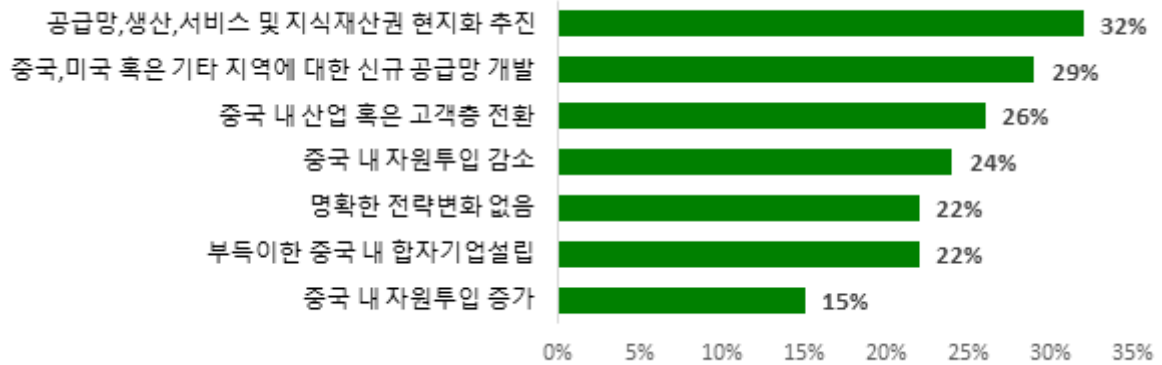
2022년 미·중 무역 긴장 상태에 따른 영향



자료 : USCBC 보고서

- 양국 긴장 국면이 사업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전략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함
- 주요 기업의 전략 조정 범위에는 공급망, 생산, 서비스, 지식재산권의 현지화 추진 및 제 3국가 신규 공급망 개발, 일부 업종이나 타겟 고객층 전환 등이 포함됨

2022년 미·중 무역 긴장 상태에 따른 기업의 전략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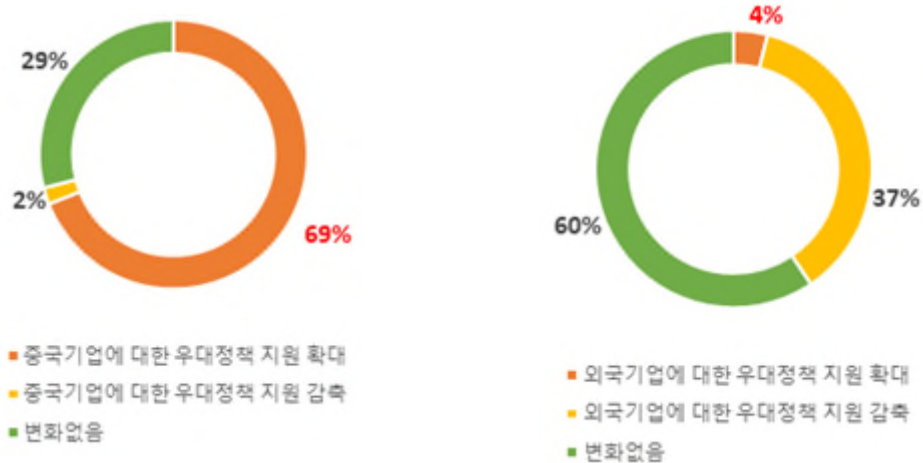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2. 중국의 산업정책 환경평가

- 응답기업의 3/4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기술의 자급자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내 기회 획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힘
- 응답기업은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 정부의 자국 지원정책이 점차 차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확대되었다고 보는 반면,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정책 지원은 그대로거나 감소했다고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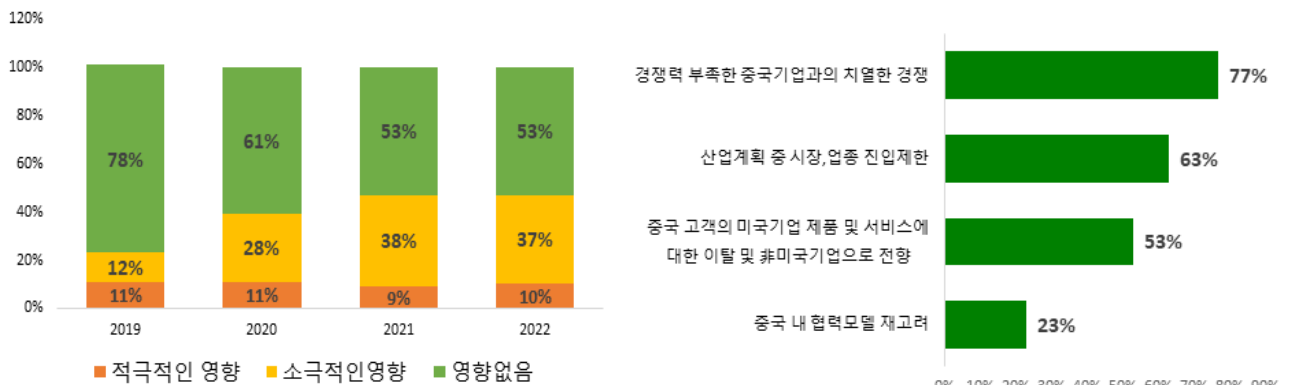
미중 무역마찰 후 기업이 체감한 중국 산업정책의 주요 변화



자료 : USCBC 보고서

- 중국 산업정책이 공정경쟁을 제한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2배 증가
- 응답기업이 답한 중국 산업정책의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중국진출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며, 중국 산업정책이 자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함
- 이어서 일부 업종의 시장진입 제한, 중국 고객의 미국제품 및 서비스 이탈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으로 파악됨

중국의 산업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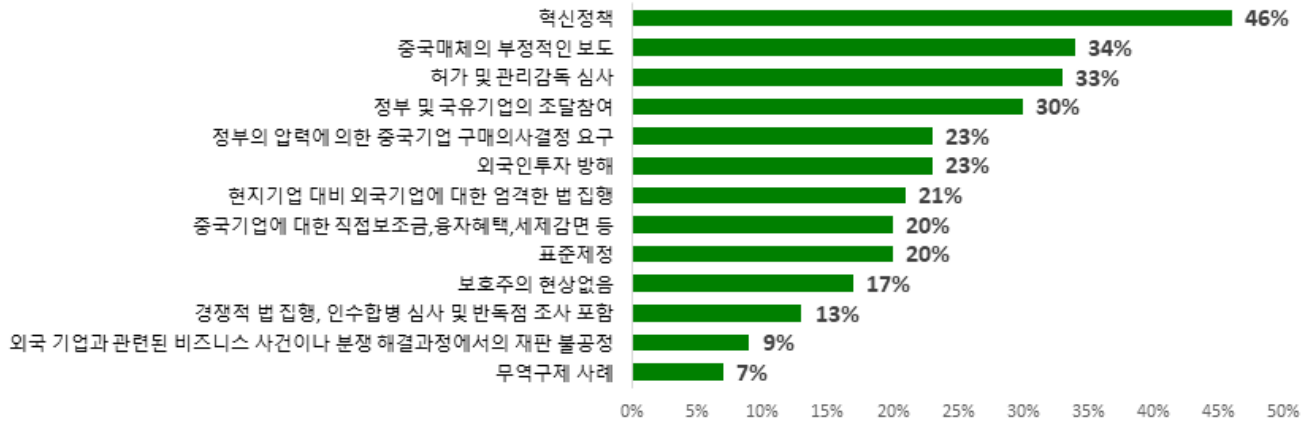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2022. 10. 10.

- 금년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미국기업이 공정경쟁을 해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보호주의 산업정책과 관련 행위를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기술 자급자족 등의 혁신정책, 중국 매체의 부정적 보도, 정부조달 참여, 외국인투자 방해, 외국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이 중국 자국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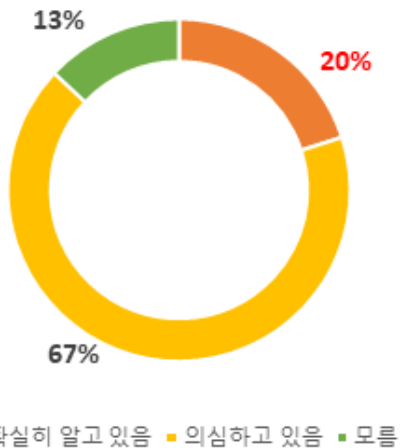
중국의 보호주의 현상



자료 : USCBC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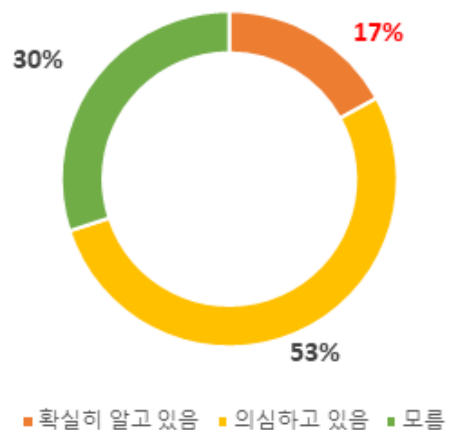
-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 각종 인허가, 계약 우선권 등 가시적인 혜택이 많아지면서 재중 미국기업 입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불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됨
- 응답 기업은 대체로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는 정황에 대해서는 의심 혹은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경쟁(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혜택 인지 유무



자료 : USCBC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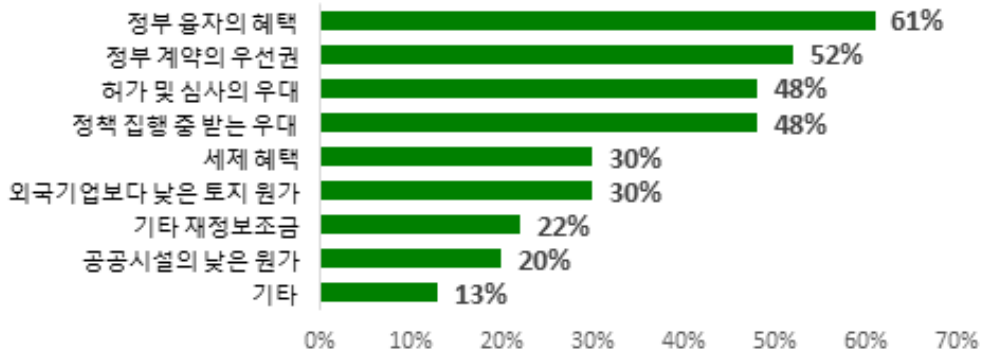
경쟁(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혜택 인지 유무



자료 : USCBC 보고서

- 중국 국유기업이 받는 주요 혜택에는 정부의 용자, 심사 우대, 세금공제 혜택, 낮은 토지원가, 낮은 공공시설 원가, 재정보조금 등이 있음

경쟁(국유)기업이 받는 혜택



자료 : USCBC 보고서

- 2015년 중국의 《인터넷보안법》 초안이 처음 발표된 이래 재중 미국기업은 국경간 데이터 정보이동·개인정보 보안 관련 정책규정에 줄곧 높은 관심을 보여왔음

- 응답기업의 인터넷 관련 주요 관심사 중 '국경 간 데이터 이동제한 문제²⁾' 비중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기업의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³⁾가 경영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우려
- 중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데에만 6~12개월이 걸리며,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을 낮추고 정상적 경영을 방해한다고 지적함
- 또한, 응답기업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 모호한 요구이행 약관 등에도 비교적 관심이 많으며, 약관 이행 준비비용(데이터 매핑 등)과 데이터 현지화를 위한 원가비용(연간 설비 보수/개선 등) 부담이 크다고 밝힘

중국 인터넷 보안문제에 대한 재중 미국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자료 : USCBC 보고서

2)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측면의 사이버보안을 우선적 중점사항으로 두고 자국 내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으나 최근 디지털 기반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이동 규제 완화 의사를 밝힘
 3) 2022년 7월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에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을 공표하였으며, 데이터 처리자는 중국 역외에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 역외이전 리스크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 성급(省級) 네트워크 부서를 통해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서에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를 신고해야 함

2022.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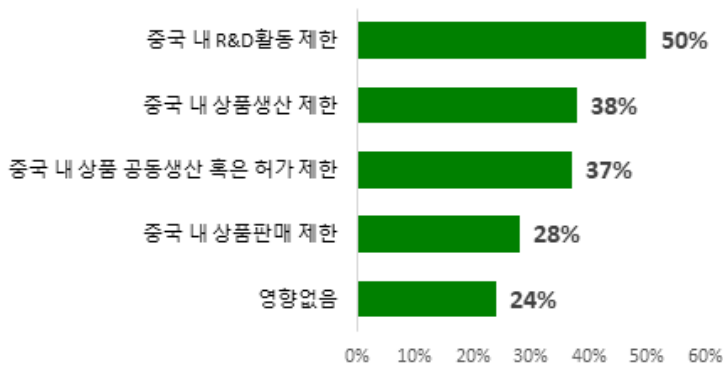
■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문제는 팽팽한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양국 정부가 중시해 왔음

- 응답기업의 46%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응답기업의 54%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다고 지적함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재중 미국기업의 큰 우려로 연구개발(R&D) 활동이 제한되고, 상품의 생산 및 판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은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서 외국기술 배제 조치를 확대하여 자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재중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요구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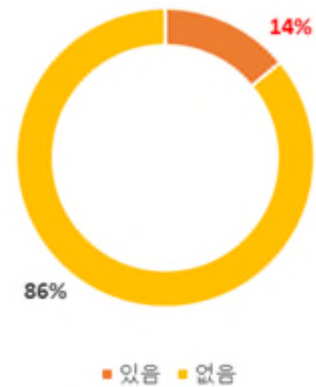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14%는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를 받았으며 이 수치는 작년 동일 항목 응답기업 비중(5%)의 약 3배 높은 수준임

중국 지적재산권법 집행 수준과 중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영향



자료 : USCBC 보고서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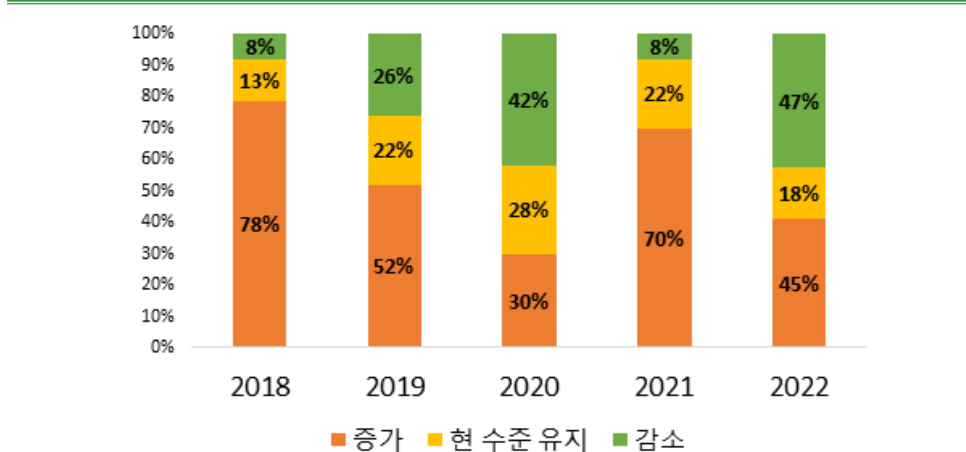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 경영환경 측면에서의 산업정책·데이터·사이버보안·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기업 실적 및 향후 계획

- 제로코로나 정책 및 미중 관계 악화 등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은 기업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은 금년도 실적을 비관적으로 예측함
- 응답기업의 47%는 금년 사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응답기업의 18%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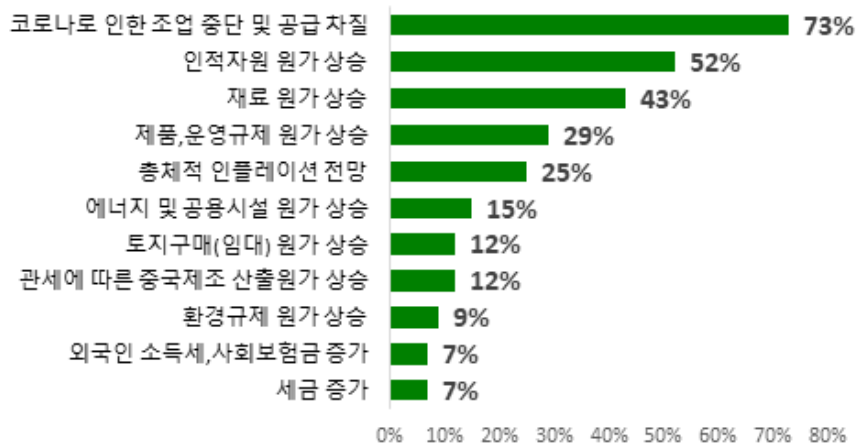
당해년도 중국 사업이익 예측



자료 : USCBC 보고서

- 응답기업의 73%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 및 공급 차질로 인해 사업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이밖에도 인적자원, 재료, 에너지 및 공용시설, 임대 등 여러 방면의 원가상승이 전반적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주요 사업비용 증가 요인



자료 : USCBC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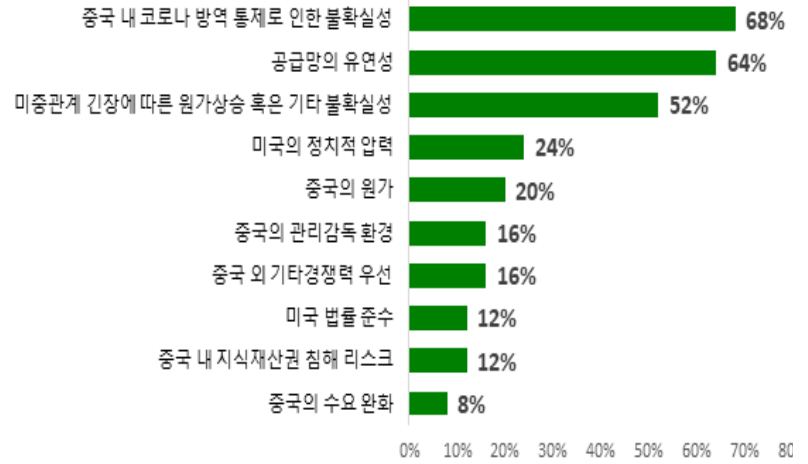
- 지난 1년 내 공급망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8%였으며 이 비중은 작년(동일항목 응답 기업 2%)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임
- 공급망의 일부를 제3국으로 이전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16%)도 작년(동일항목 응답기업 12%) 대비 증가

- 공급망 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제로코로나 방역통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며, 이 밖에도 공급망의 유연성, 원가상승, 정치적 압력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

지난 1년 내 공급망 이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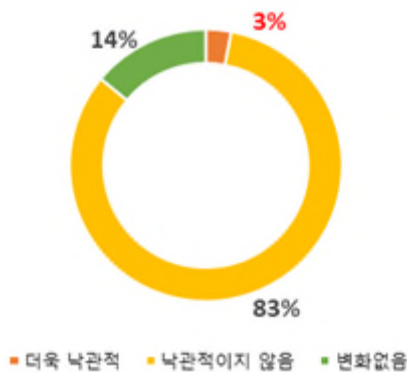
공급망 이전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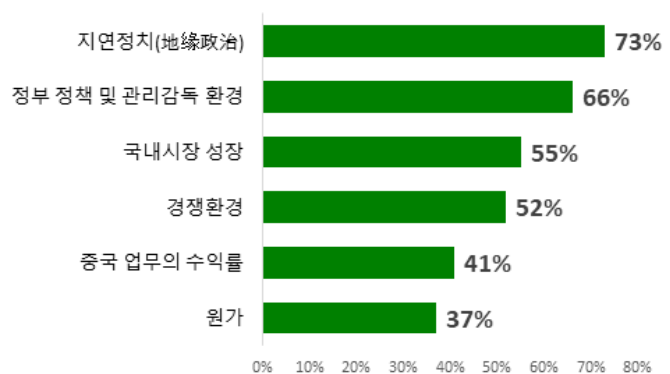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 재중 미국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견해도 예전보다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짐
 - 중국 내 현재 경영환경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83%에 달했으며, 낙관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3%에 그침
 -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83%)은 작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42% 증가
- 응답기업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장기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지연정치(地緣政治)'를 향후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리환경도 기업실적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견해



향후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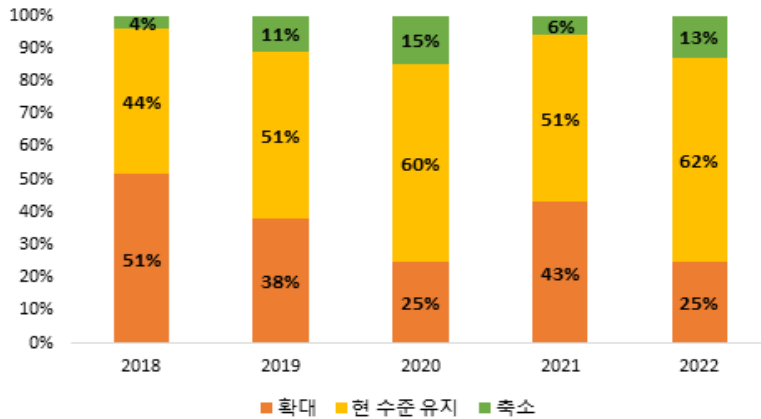


자료 : USCBC 보고서

2022. 10. 10.

-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은 기업의 투자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응답기업의 62%는 향후 1년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망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응답기업의 25%만이 향후 1년 내 중국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이 수치는 4년 전인 2018년 설문조사 동일항목 응답비중(51%)의 절반 수준임
- 응답기업의 13%는 향후 1년 내 중국사업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4년 전 대비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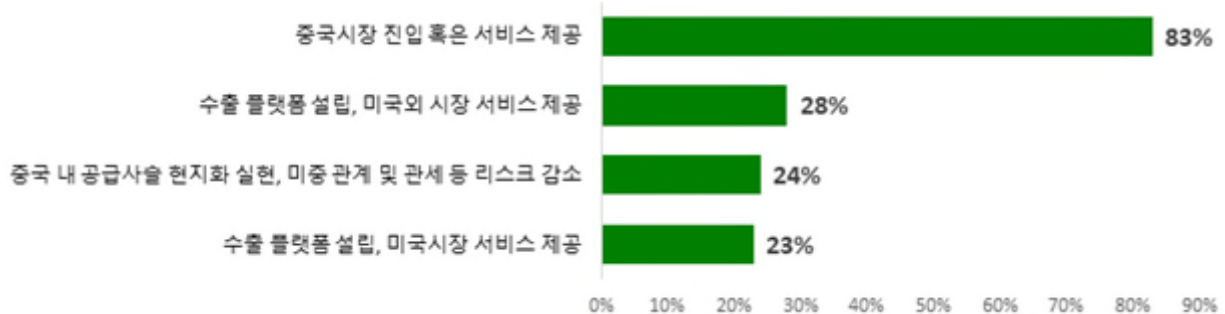
향후 1년 내 투자 확대 또는 축소 계획



자료 : USCBC 보고서

-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여러 압력 속에서도 다수의 응답기업이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중산층 고객이 여전히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임
- 응답기업의 83%는 중국시장에 대한 가장 큰 투자 목적이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수출플랫폼을 설립하여 미국 혹은 제3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20%대 수준에 그침

대중국시장 투자 목적



자료 : USCBC 보고서

-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재중 미국기업이 여러 불리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 시장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데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선불리 사업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USCBC(美中贸易全国委员会), 『中国商业环境调查』, 2022.08
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통권17호), 2021.10
3. CCPIT (<https://www.ccpit.org/usa/a/20211231/20211231tuab.html>)
4. etnews (<https://www.etnews.com/20220706000221>)
5.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80434>)